

[종합]

고령화 시대 '실버귀농' 관심높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실버 귀농'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원하는 실버세대들의 귀농이 잇따르면서 도시 은퇴자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 귀농세대의 한결같이 농촌 생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저렴한 생활비를 꼽는다. 도시생활에 비해 소비지출이나 운전 씬쓰가 적은 데다 농촌에서는 집앞의 텃밭만 잘 가꾸어도 여가한 한 먹거리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60세에 은퇴한 부부가 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군단위 지역에서 '평균 수준'의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

월 평균 생활비 97만원... 도시의 63% 수준 부담없는 전원생활·먹거리 풍족 '일석이조'
전남지역 등 도시 은퇴자 새 삶의 터전 각광

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97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서울 등 도시에서 노후를 보낼 때 필요한 생활비(154만원)의 63% 수준으로, 농촌지역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은퇴자들이 어느 정도의 연금과 저축만 있으면 시골에서 경제적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농촌진흥청은 은퇴후 농촌으로 이주한 50세 이상 귀농자 40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

과 응답자의 53%가 한달 생활비가 1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또 이 가운데 50만원 미만의 귀농자가 21%에 달했으며, 100만~150만원 미만은 24%, 150만원 이상은 23%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78%가 현재의 경제수준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귀농자를 대부분이 농촌생활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처럼 귀농자들의 만족감이 높은 것은 농촌에서는 상대적으로 적

은 소득을 가지고도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기본적인 소비지출 항목이 많은 도시에서는 월소득 200만원으로도 생활이 빠듯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절반 가량의 소득으로도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얼마 전만 해도 전원생활은 대체로 돈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항이었지만 지금은 농촌의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 귀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농촌의 경우 전기료와 차량 유지비 등 비교적 적은 생활비로 도시보다 한층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日 40대 여성 32%
"한국어 배우고 싶다"

일본 40대 여성이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어로 한국어가 1위에 꼽혔다.

오리온이 최근 발표한 '국제화시대에 영어 외에 배우고 싶은 외국어' 조사에 따르면 종합 1위에는 프랑스어(32.2%), 2위 중국어(27.2%)에 이어 한국어(24.1%)가 고른 지지도 3위를 차지했다.

한국어는 여성 중 20대 직장인에서는 21.0%로 3위였지만, 30대에서는 2위(26.0%), 40대에서는 1위(32.5%)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한국어에 대한 인기도 함께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자막 없이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싶다"는 한류팬들의 존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남뉴스

영남지역 男兒 선호 '뚜렷'

광주·전남도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아

통계청, 출생성비 비율 집계

전국적으로 울산, 경남, 경북, 대구 등 영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남아선호 사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도 전국 평균에 비해 남아의 출생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 지역 여성들이 일생 동안 가장 많은 아기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부산·서울·대구 등 대도시 지역 여성들은 타 지역에 비해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부부들 사이에 딸·아들을 구분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확산되면서 2000~2005년(2000년~2004년 실적) 전국의 평균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109.2로 정상성비인 103~107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지만 1995~2000

년 110.0에 비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상 성비란 아무런 인위적 요인을 가하지 않았을 때 의학적으로 예상되는 출생성비를 뜻한다.

2000~2005년 출생성비를 전국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11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남(112.9), 경북(112.8), 대구(112.4), 제주(11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남 지역 시도가 출생성비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남아선호 사상을 반영했다.

충북(110.0), 광주(109.8), 부산(109.5), 전남(109.5), 강원(109.4) 등도 전국 평균에 비해 남아아이의 출생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대전(109.1), 충남(108.9), 경기(108.1), 서울(107.6), 전북(107.6) 등은 전국 평균에 비해 여자아이의 태어날 확률이 더 높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묵시적 신변보호요청 외면... 국가가 배상해야"

경찰관에게 묵시적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가 외면 당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지동 부장판사)는 24일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을 볼 때 묵시적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볼 수 있고 경찰이 이를 외면했

다면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인 김모(여)씨 가족은 김씨가 이모씨와 사귀었으나 결혼을 거부하자 이씨로 부터 감금·폭행을 당하고 결국은 흉기로 찔려 살해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변보호를 하지 않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남뉴스

"소득격차 커지면 불행"

한국인들 행복도, 소득수준과 무관

소득 수준보다는 소득의 분배 상황이 한국인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의 절반에 달하는 중산층이 느끼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미지는 빈부 격차이며, 이들 중산층은 국회와 정부, 청와대를 가장 가장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는 24일 제4차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결과 나타난 한국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KGSS는 두 기관이 미국 시카고대 주도로 세계 39개국에 참여해있는 '국제사회조사기구'에 가입한 이후 2003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지난해에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천605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설문대상에게 '귀하의 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라고 묻고 불만족(1), 중간(2), 만족(3)이라는 선택지를 줬을 때 평균 만족도와 월평균 가구소득은 별다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층의 평균만족도는 2.44, 100만원 미만은 2.23,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는 2.25로 모두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평균만족도 2.22

보다 높았다. 또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대, 500만원대, 600만원대인 응답자들의 평균만족도는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인 응답자보다 떨어졌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자신보다 잘사는 사람과의 소득격차가 커지면 불행해진다"고 설명했다. /연남뉴스

교육공무원 '공짜 여행' 엄벌

앞으로 교육 담당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단체의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로 나갔다가 적발되면 문책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직무원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경비로 공직자들이 무료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전국 교육청과 산하기관, 국립대학교 등에 보냈다.

청렴위는 국고보조금 지급이나 전산망 위탁운영계약, 용역업무의 수행 등 직무와 관련된 단체나 교육부 인가단체, 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해외출장·연수에 공무원들이 무료로 동행한 사례를 적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남뉴스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24일 문화 체험 날들이자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남뉴스

광주권 그린벨트 등 9천900km²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광주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54.7km²와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지역 5천578.7km²를 내린 등 9천900km²가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자로 지정이 끝나는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

역 4천294km²와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지역 5천578.7km²를 내린 등 9천900km²가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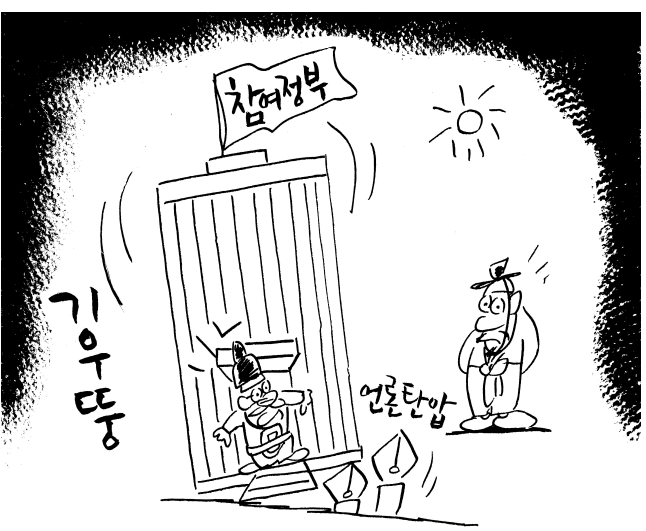
재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은 광주권 554.7km²를 비롯, ▲수도권 1천566.8

km² ▲부산권 597.1km² ▲대구권 536.5km² ▲대전권 441.1km² ▲울산권 283.6km² ▲마산·창원·진해권 314.2km²이며, 수도권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은 ▲서울 90.9km² ▲인천 903km² ▲경기 4천584.8km²이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건드려서 득된 정부 못봤다

분 실

골프회원증 No. J01120127 광주C.C 삼성물산(주) 감철순 상가 회원증(대,소)을 분실공고함.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 (2차)

본 회사는 2007년 5월 25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이며 본 회사를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자는 본 회사를 공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채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5일
주식회사 에센에너지
광주광역시 서구 성동동 876-14
최인환 이종찬

합병 공고
(채권자의 및 권제출공고)

한성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대도전력(이하"을"이라 한다)과 서기 2007년 5월 23일 개최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과 "을"이 합병하고, "을"을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07년 5월 23일
"갑" 한성산업개발 주식회사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92-4
대표이사 정성윤

"을" 주식회사 대도전력
전남 함평군 월여면 월아리 1178-1
대표이사 김원영

중고차 전차종 매입판매 **고령차부터 신차까지 무조건 매입합니다**

전액 할부 판매 **내수 차량 매입** **수출 차량 매입**

- 전차종 할부판매
- 차량전매, 보험전매할부
- 무이자10개월
- 대출이자월100만원당 4500원~7500원까지
- 무상S/S 5개월 5천원~1년 2만원까지
- 당일 출고 회생서비스
- 대형승용, 수입차, 중형승용, 소형승용, 국민차, RV, 짐차
- LG차량 1톤 개별회용, 4.5톤 개별회용 대용량회용
- 설립임대차량 매입 바로이전
- 바로 현금지급 전자출매인
- 급구 테라칸4륜, 스타렉스4륜, 소년토4륜
- 세이로, 라노스, 리보, 디아스, 뉴비라, 아반떼, 마티즈, 비스타, 롤리케비, 아일라, 프라이드, 세피아, 스포트라, 기아드론, 프론티어, 봉고II 1.3톤~4톤, 기아4.5톤, 기아5톤, 현대4.5톤, 5톤, 쌍성아미온
- 토미, 쉐보, 코러스, 카운티 25~29인승, 에이비티 35~48인승, 그레이스12~15인승, 스텔러스9~12인승, 이스타12~15인승

☎ 010-2379-1710, (062)651-6006 **호남 최대의 통일매매 3단지 (주)나폴레옹 무역상사**

재광주광양향우회 정기총회 및 화합의 한마당

옛그제 피었던 매화꽃이 벌써 알알이 영글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7년 『재광주광양향우회 정기총회 및 화합의 한마당』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모든 향우들께서 뜻 깊은 축제의 행사에 참석해 정겨운 덕담도 나누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행사내용

1. 개회
2. 읍면별 운동경기
3. 향우 노래자랑
4. 경품추첨
5. 시상 및 화합의 한마당

■ 일 시 : 2007년 6월 2일(토) 10:00~16:00

■ 장 소 : 광주 남구 사동 구동체육관

■ 회 비 : 참가 가족당 1만원(연회비)

■ 연락처 : 011-603-9150 (이문채) 019-605-3298 (전갑석)

※ 참가한 전 가족에게 고급 생활용품·중식·음료 및 다과를 제공하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세탁기, 비데, 전기침소기 등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재광주광양향우회 회장 허재호

산행안내

5월 26일(토)

- ▲광주지구에이씨우회 중심사 주자장악(소)상월(화) 5월26일(토) 09:30분 ~ 12:30분 크리 아하루스234-0616 T.0502-108-0522 011-645-9210
- ▲나시모산악회 정상재-구인원 대극동주 제1445 5월26일(토) 06시30분 영주체육관광주지역회 관후문경우출발 http://cafe.daum.net/garassuo T.052-266-7221, 011-621-7231
- ▲무등도요산악회 경남 사천군 와동산 5월26일(토) 08시 문에 회관후문경우출발 http://cafe.daum.net/mucearg1028 T.010-9932-8000
- ▲청운산악회 소백산 비류봉(회)방사월출산행 5월26일(토) 05시30분 브론드리(당주역, 문이리)관후문경우출발 T.011-605-3477

5월 27일(일)

- ▲한울산악회 봉화 정방산 5월 27일(일) 06시30분 국제호텔전 버편 광주은행(문)에회관경우)출발 ※대오카:해운산악회(에)약도(보)간(일) T.011-645-3371 011-635-932
- ▲울타리산악회 경주 원역산 5월27일(일) 08시 백운봉 국 제호텔앞(문)방KT경우)출발 ※ 다음카:해운산악회 T.010-5500-3598, 011-601-0132
- ▲광주산악회 경남 산청 지리산 세석경전 천황봉 5월27일(일) 07시 영주체육관(문)에회관경우)출발 T.226-992, 011-629-8725
- ▲광주비두리산악회 전북 부인 역녀봉-와동산 5월27일(일) 08시 광주역(문)에회관경우)출발 ※ 다음카:해운산악회 T.011-640-0871
- ▲광주일포산악회 충북 단양 소백산(월출산행) 5월27일(일) 07시 대인광장(문)양동출발 T.011-608-7627, 011-605-5034
- ▲광주신가족 경주 남산(이)우 봉(남)우봉 5월27일(일) 07시 대인광장(문)양동출발 T.019-499-1405, 011-9608-3357
- ▲삼각산악회 전북 남원군 비래 능(남)원관(문)관광양)출발 T.011-606-3477
- ▲청룡산악회 대전 소백산 5월 30일(수) 08시 광주교원공회회 관(문)에 회관경우)출발 T.011-616-597
- ▲광주한국산악회 소백산중주(출산행) 5월31일(목) 04시 영주체육관(문)에회관경우)출발 ※예약바람 T.011-615-2279
- ▲명문산악회 경남 거창군 금원 산 5월28일(일) 승정공원경우)출발 T.018-647-2315, 017-609-9313